

MUMBAIKAR

9th batch Mumbai,
India Team

CONTENTS

1. 5월 일정 소개

2. 문화 체험


3. 관계 맺기

4. 궁금증 & 고민

5. 포토 에세이

5월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Day Camp	2 Day Camp	3 Day Camp	4
5	6 English Class	7 Hindi Class Juhu	8 Juhu	9 Juhu	10 Juhu	11
12	13 English Class Juhu	14 Lakeside Camp	15 Lakeside Camp	16 Lakeside Camp	17 Lakeside Camp	18 Lakeside Camp
19	20 English Class	21 Hindi Class	22 English Class	23 350ppm 준비 Juhu	24 English Class Juhu	25
26	27 Visa Trip	28 Visa Trip	29 Visa Trip	30 Visa Trip	31 350ppm 준비	



문화 체험

Visa Trip

인도의 투어리스트 비자 특성상 인도에서 90일 이상 연속적으로 체류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인도 팀은 4일 동안 스리랑카에 다녀왔다. 짧은 4일 동안이었지만, 가정 방문도 해보고 음식과 문화 및 스리랑카 사람들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YMCA RaonAttī









관계 맺기



Juhu Street Children Center

5월에 우리의 프로그램을 단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하였다.

- 종이 접기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아이들에게 의미 있었던 것 같다. 아이들이 관심 갖는 것을 선택해서, 같이 만드는 것이 좋았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보다는 같이 접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신선했다.







RaonAtti



Juhu Street Children Center

- 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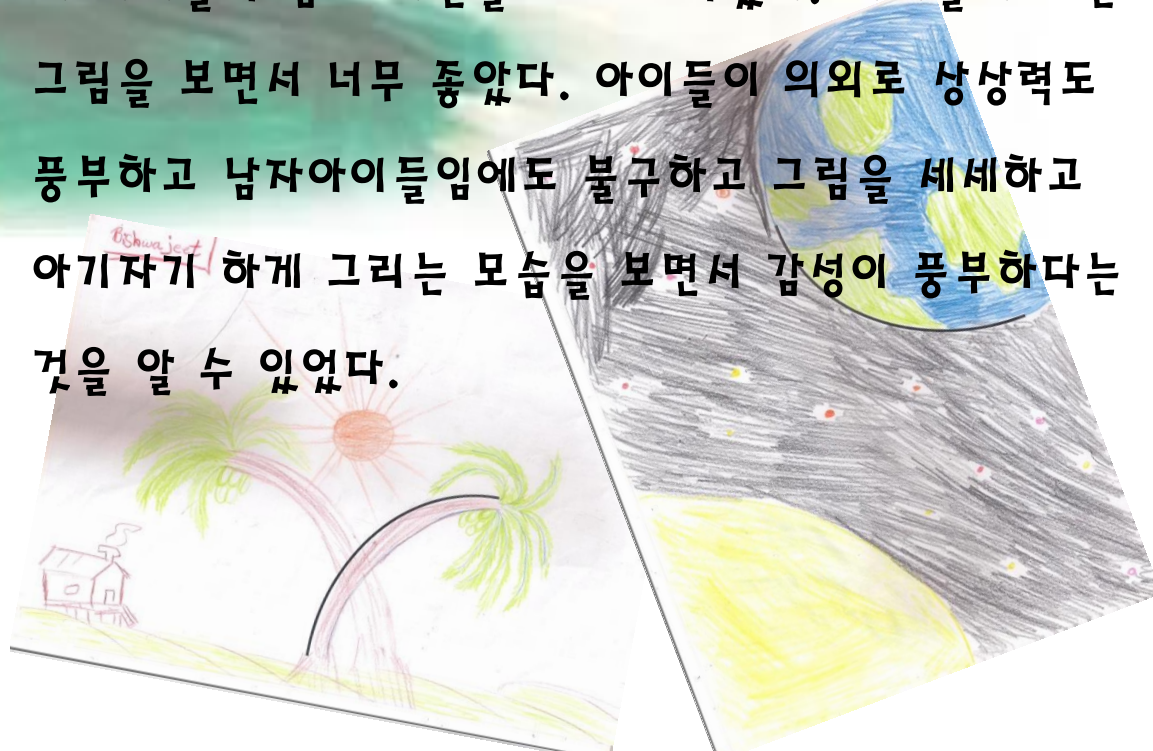
주후 센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딱지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다. 날씨 캠프의 딱지 세션과 대조해서, 주후에서는 게임을 할 때 토너먼트로 하지 않았고, 규칙이 정립되지 않은 채로 게임이 시작되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딱지 크기가 통일되지 못하거나, 게임의 흐름이 중구난방 식으로 흘러가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크리켓이나 캐럼이 아닌 색다른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매개체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Juhu Street Childre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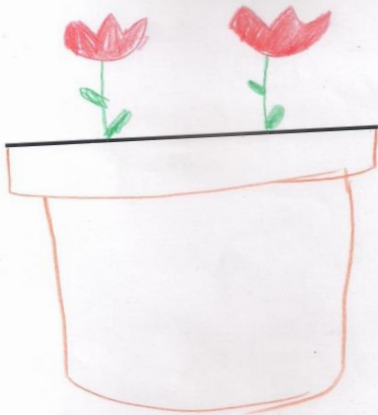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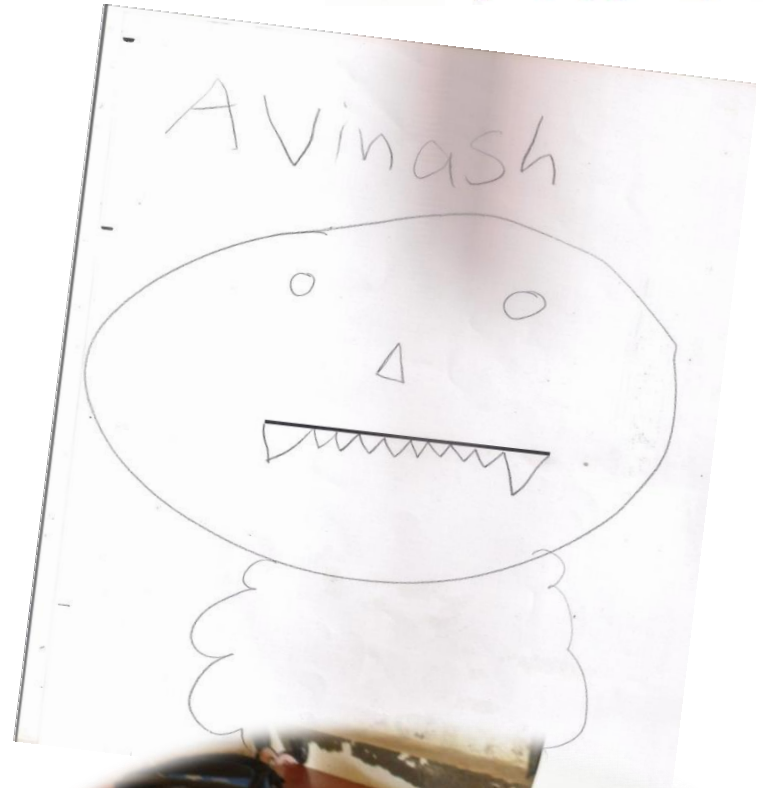
- 그림 그리기

주후 아이들과 같이 그림 그리기 세션을 할 수 있었는데, 프로그램이라기 보다 색연필과 종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너무 좋았다. 아이들이 의외로 상상력도 풍부하고 남자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세세하고 아기자기 하게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RaonAtti





RaonAtti



Lakeside Camp - 1일차

Nilshi라는 캠프 사이트로 4박 5일동안 캠프를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2번째 캠프에 가려고 했지만, 일정이 밀려서 14일부터 18일까지의 세 번째 캠프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호수 근처에 Y만의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좋았고, 참여한 캠퍼들의 수가 많은 것에도 놀랐다. 우리는 Day camp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캠퍼로서보다 봉사자로서의 자세로 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Lakeside Camp - 1일차

첫 날, 캠프 리더인 카를로스와의 프로그램 준비미팅을 했는데, 우리가 준비한 것이 신문지 밖에 없기도 했고, 정해진 시간 동안 최대의 재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딱 지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날, 한국 문화 체험으로 딱지 세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을 갑자기 준비하게 되어서 당황하기도 하고, 딱지도 전 기수의 프로그램을 따라 하는 것 같아서 부담감이 들기도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족을 얻고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대해 더 의미를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들었다.





Lakeside Camp - 2일차

한국 문화 체험으로,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딱지 세션을 진행했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우리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의무감도 느껴지만, 다음 순서에는 큰 부담감이나 의무감이 줄어들었고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즐길 수 있었다.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딱지를 통해 아이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인도 아이들이 한국의 아이들처럼 딱지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매우 새로웠다.



Lakeside Camp - 2일차



딱지 세션을 하면서 들었던 고민은, 경쟁의식이라는 것이 게임을 즐겁게 진행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패배자에게는 상실감을 주는 것이라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딱지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껴서, 난이도에 대한 고민도 들었다. 또 여자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아서 이 점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우리 프로그램만 진행하다 보니 캠프 일정의 다른 세션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없어서 아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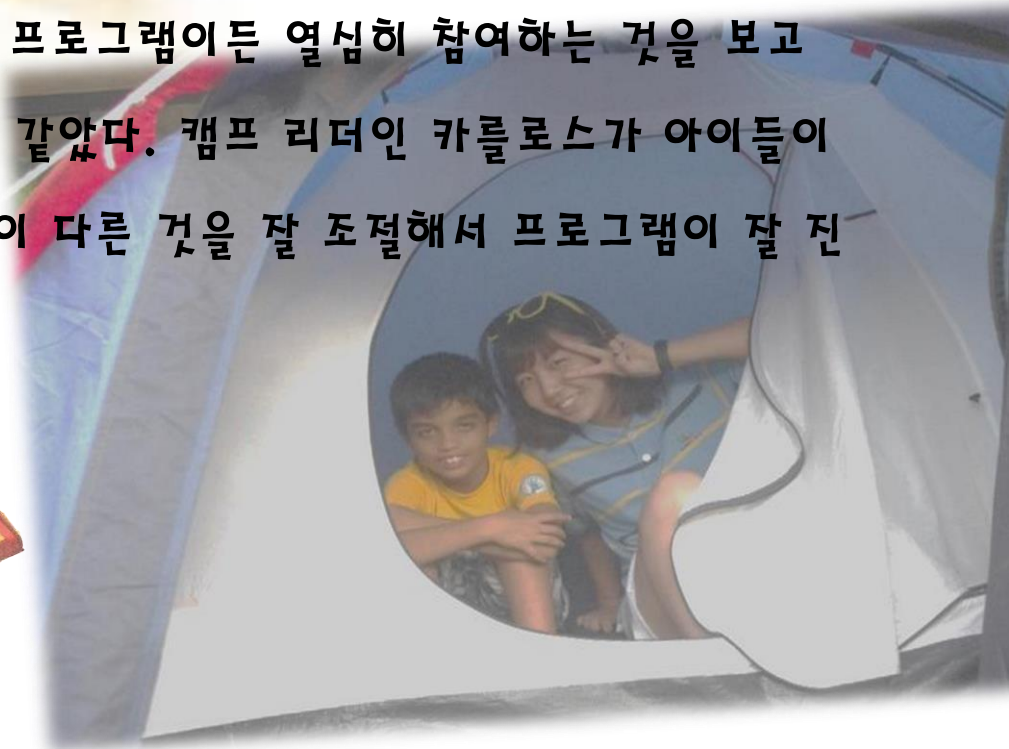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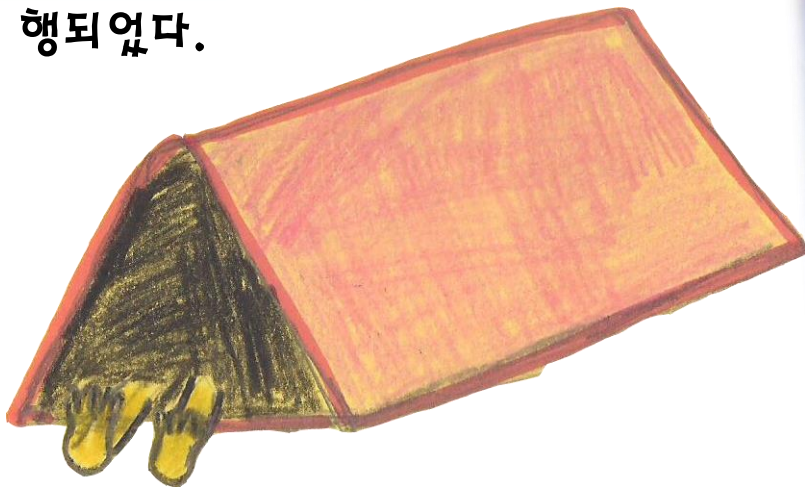
RaonAtt! 





Lakeside Camp - 3일차

우리는 호수에서 하는 카야킹도 경험해 보게 되었는데, 호수의 풍경과 경험이 색달랐다.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경험이었다. 오후 일정의 게임(인간 빙고, 텐트 만들기 등)을 하면서는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패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든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보고 캠프가 독립심과 협동심을 길러주는 것 같았다. 캠프 리더인 카를로스가 아이들이 활동을 할 때 아이들마다 신체적 능력이 다른 것을 잘 조절해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었다.



Lakeside Camp - 3일차

밤에는 시니어 아이들과 함께 호숫가에서 야영도 할 수 있었다. 야영과 트래킹을 하면서 살면서 보지 못했던 많은 별들과 반딧불을 볼 수 있었고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걸었는데,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는 것도 참 신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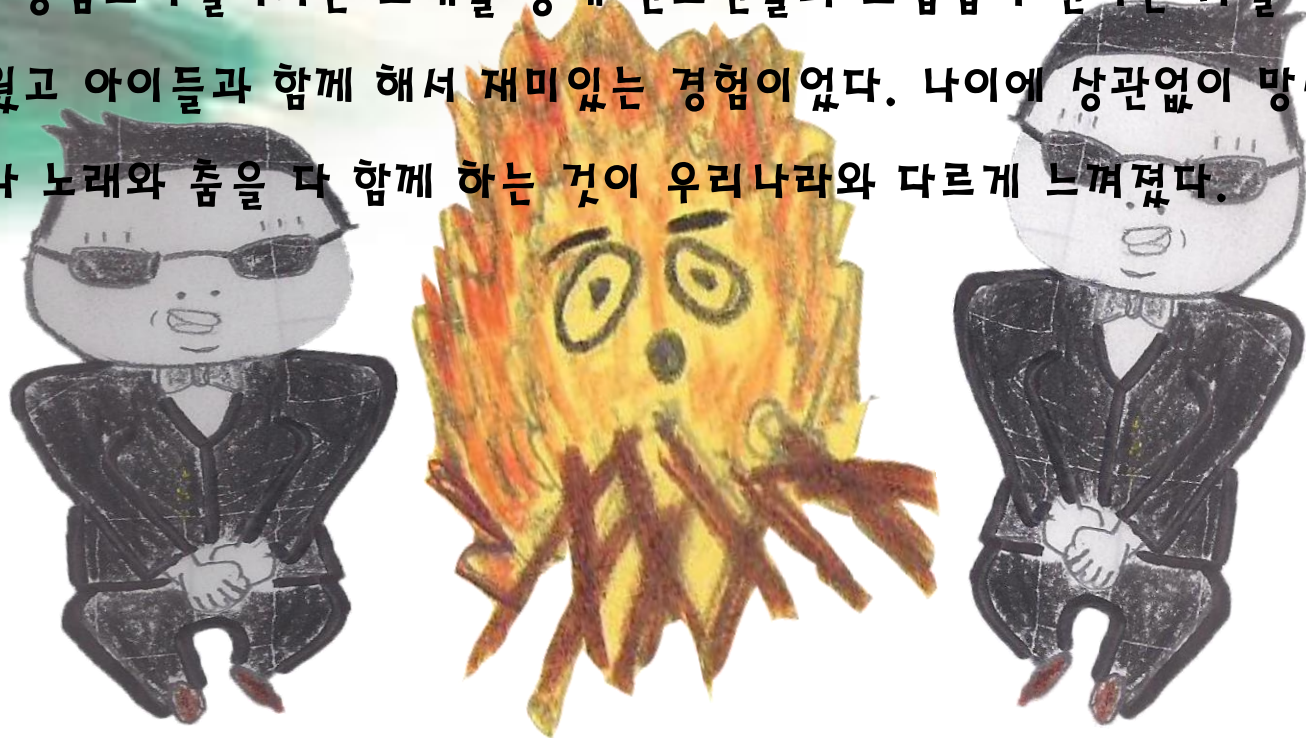
Lakeside Camp - 4일차

오전에는 팀 별로 마스코트 만들기를 했다. 팀의 리더인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어떤 자원봉사자는 팀원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마스코트를 만들어 내는 반면, 다른 봉사자는 아이들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캠프 마지막 밤이라 아이들이 장기자랑 준비를 했는데, 연극을 몇 시간 만에 짜고 능숙하게 스스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와 다르면서도 놀라웠다.



Lakeside Camp - 4일차

아이들이 skit을 준비 하는데, 한국과 달리 캠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skit의 내용에 교훈을 담고 있어서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도 느꼈던 점이 많았다. 캠프 파이어를 위해서 우리도 강남스타일 춤을 급하게 준비해 공연했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다.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통해 인도인들과 교집합이 된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즐거웠고 아이들과 함께 해서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망설이지 않고 누구나 노래와 춤을 다 함께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느껴졌다.





RaonAtt! 



Lakeside Camp - 5일차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에서 처음에는 방관자처럼 행동했다면, 이후에는 아이들을
 독려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아이들과 헤어질 때 아이들이 우는 것을 보고
 감정이입이 되었다. 캠프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는 않았
 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 이별이었고 추억이 되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어색하
 지만 더 많이 이야기하고 만나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몸바이 뒤집어서 보기

궁금증 & 고민

— 자원봉사자로서의 고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원봉사자로서 우리의 경험이 부족했고, 캠프 프로그램에 앞서서 우리에게 자원 봉사와 관련된 사전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캠프 프로그램에 투입되었다. 또 언어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나설 수 있는 확신이 서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로서도, 캠프 참여자로서도 위치가 애매했다. 무엇보다도 다른 봉사자들과의 소통을 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으로 이러한 고민을 느끼게 된 이유인 것 같다. 앞으로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또 행사 관련된 책임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의 의사도 표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아이들에 대한 고민

캠프 전까지, 우리의 주된 활동 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경제적으로나 가족 관계 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캠프 전까지는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항상 비슷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이들을 만나왔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캠프에 가서 캠프 아이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은 외국도 많이 다녀오고, 뭍바이의 쇼핑몰도 많이 다니는 등의 많은 경험을 하고 있었다. 반면에 우리가 주로 만나는 아이들은 오직 TV보는 것과 사소한 게임과 놀이를 하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다. 우리는 이 상반된 두 부류의 아이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꼈다.

- 다른 라온아띠 국가에 비해서 인도 뭄바이 Y의 특성으로 인한 고민

3개월 동안 뭄바이에서 활동해본 결과, 다른 국가와는 달리 자주 활동 장소가 변경되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 장소에 따른 여러 프로그램이나 아이들과의 지속적인 관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우리의 활동 지역이 계속 바뀌다 보니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서 좋긴 하지만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조금 더 깊이 맺을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같고, 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밖에 할 수 없어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

5인 5색



포포 메세미

SONAM(박선영)

라운아피로서 이 곳에 오기 전, 많은 조언들을 주변에서 들을 수 있었다. 선배기수로부터, 간사님으로부터, 라운아피 책자에 실린 8기들이 전하는 한마디까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열라는 말이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알 수 있었지만 자세한 뜻은 와 닿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 뜻은 ... 비록 짐작만 할 수 있었지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여기 와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어느 순간 나는 처음에 쉽게 다짐했던 마음과는 달리,

마음을 비우지도 열지도 못 하고 있다는 깨달을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내보니 내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과 여는 것이었다. 나의 부족한 영어, 힌디어 실력을 탓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한 발자국 다가서는 것을 두려워했고 마음을 여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었다. 마음과 행동이었다. 먼저 가서 인사하고 부족한 영어라도 도움을 받아가며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먼저 다가서는 것. Lakeside camp에서 처음에 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아이들도 내가 그 동안 만나온 아이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어려웠고, 같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같이'있음의 가치를 느끼고 싶어하면서, 또 가끔은 같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내가 한심했다. 그런데 캠프에서 아이들은 이런 나의 소심한 모습과는 다르게 먼저 다가와주었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인가 의심을 하게끔 많은 사랑을 주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나에게 먼저 다가와주었다. 그냥 감사했다. 캠프에 아이들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감사했고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에도 감사했다.

또 시간이 가면서 생겼던 고민은 나는 라온아띠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뭘바이라는 대도시 속에서 나는 '라온아띠'답게 살고 있는 것일까, 과연?

35Oppm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The 11th hour'라는 영화를 감상했는데 그 영화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투표를 하면 된다고 했다. 가장 하기 쉬운 투표는 우리의 소비 행태라고 영화에서 설명했는데 하나의 물건이 어디서 생산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팔리고 있는지를 알고 공정한 제품을 소비한다면 그게 곧 하나의 투표가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알고 있는 것부터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지만 쉽게 외면해 버리고 마는 문제들.

환경문제, 빈곤문제, 교육문제, 노동자문제 그리고 아시아에 대해 고민해 볼 기회 등. 어디선가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인생이 된다.'라는 문구를 읽은 적이 있다. 라온아띠로서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생각을 갖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내 인생자체가 라온아띠가 되고 내 인생으로 인해 나의 주변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뭍바이에서의 생활은 2달 남았지만 라온아띠로서의 생활은 끝이 없을 것 같다.



ABHISHEK (나한명)



5월. 아주 사소한 차이에 대하여

5월에는 두 차례의 캠프를 통해 많은 인도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날이었다. 함께 지내며 8~20살 사이의 인도인들의 생각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들이었고, 잊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한 날들이었다.

그렇게 캠프를 마치고, 다시 주후센터의 아이들을 만났을 때, 나는 그 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 동안 만나면서 익숙해졌던 아이들의 모습에 가려진 빈부격차에 관한 것이었다.

7만원짜리 캠프에 참여하여 즐겁게 활동하는 아이들과 주후의 아이들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우리는 흔히 자본주의가 노력과 개인능력의 차이로 만들어진 공정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 나 역시도 이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디서 태어났는가'라는 아주 사소한 운의 차이로 벌어진 이 상황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또한 착하고 똑똑한 이 주후의 아이들도 부모나 누군가의 경제적 지원과 교육을 받는다면 캠프의 아이들처럼 마음껏 놀고 공부하고 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살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쩌면 ‘나’도 부자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운 좋은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다시 들었다.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활동을 국내에서, 인도에서 진행하고 느껴지만 항상 작심삼일처럼 불투명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자책하며 만족하지 못하던 모습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거대한 몸 바이에 사는 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왜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가 라는 것을 계속 느끼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내 운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전혀 아까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알 것 같다.

물론 최선을 다해 내 운을 쓰고 가져오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회를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런 모습이 몸바이에 많아지고 전 세계에 많아진다면 자본주의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본다.



PRIYANKA(김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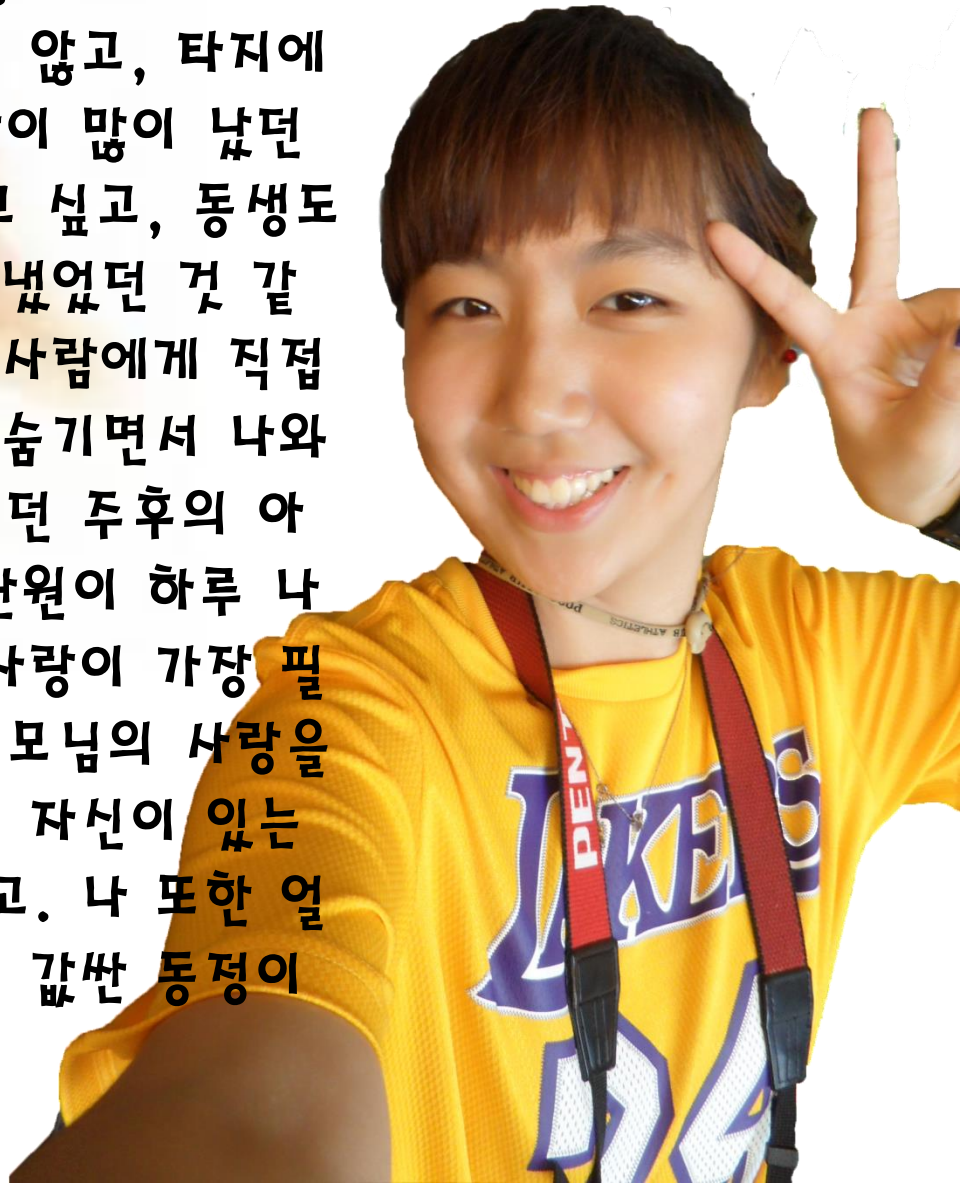
5월은 아버지 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다. 항상 5월 달에는 부모님 선물을 사드리랴, 부모님에게 헤드린 이벤트를 생각하랴 바빴던 것 같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달랐다. 인도에 와있느라, 부모님에게 카네이션, 케익은 물론 전화 한 통 드리지 못했다. 그렇게 허전하게 아버지날을 보내다가, 소셜 네트워크에 한국 친구들이 부모님께 헤드린 이벤트를

보게 되었다. 문득, 오늘 내가 만난 Juhu centre 아이들이 생각이 났다. 센터 아이들은 항상 아버지 날이든, 어머니 생신이든, 아버지 생신이든 부모님과 같이 있지 못하고, 센터에 있었을 것이다.

센터의 아이들은 나보다 한참 어리다. 낮잠을 자고 깨면, 더 자고 싶다고 엄마아빠한테 칭얼 대고 싶을 나이다. 근데 주후 센터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정해진 시간에 단 한 번 우는 소리 안내고 작은 막내까지 자신의 이불을 개며 잠에서 깬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5월 달에는 ymca 멤버십 아이들과 캠프 활동도 하였는데, 그 아이들은 비싼 돈을 주면서 부모님과 떨어지는 체험을 한다. 뭔가 불공평 하다.

이번 달은 뭔가 알아간다는 기분도 들지 않고, 타지에서 서의 생활이 적응이 되어가서 한국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다.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동생도 보고 싶고. 그래서 우울했던 한 달을 보냈었던 것 같다. 이런 우울 한 감정을 팀원이고 주변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항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면서 나와 나의 팀원들을 항상 웃는 얼굴로 반겨주던 주후의 아이들이 많이 생각 나는 달이었다. 한 단원이 하루 나뉘는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 엄마아빠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나이에 아이들은 센터에 와있어 부모님의 사랑을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받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있는 동안 만이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주겠다고. 나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값싼 동정이 아닌, 진짜 부모님의 사랑을 주고 싶다.



AMAN(고동진)

YMCA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바로 Camp이다. 이번 5월 한달 동안 2개의 캠프가 있었고 우리는 그 두 번의 캠프 다 경험 할 수 있었다. 하나는 YMCA내에서 이루어지는 Day Camp였고 다른 하나는 캠프 사이트로 이동해서 진행되는 Lakeside Camp였다. 아이들과 함께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활동 하기도 했지만 주된 역할은 Volunteer였고 두 캠프 다 Volunteer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처음 하게 된 Day Camp에서 내가 Volunteer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은 주된 진행은 이곳 현지 Volunteer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들은 그들을 보조해주고 캠프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들은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했고 몇몇 아이들과 의사소통하기에는 알고 있는 힂디어가 너무도 부족했다. 물론 내가 사전에 어떻게 진행 되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점도 있지만 중간중간 프로그램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느낀 적도 있다. 또 간혹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나는 그에 대해 모르다 보니 그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전체적인 캠프 진행에 대한 고민 보다는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집중할 수 밖에 없었고 때로는 그로 인해 프로그램 진행에 방해가 된 적도 있다. 마지막에는 내가 이 캠프에서 Camper인지 Volunteer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어떤 활동을 하던지, 그 활동에서 나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던지 간에 그것에 대해 더 알려 노력 하고, 보다 많은 궁금증을 가지려고 했어야 했는데 캠프를 너무 쉽게만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Lakeside Camp 를 가게 되었을 때 스스로 다짐을 했다. '이번에는 Volunteer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겠다.'라고 말이다. 전 캠프에서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나는 그날 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했고 항상 머리 속으로 상기시키려고 노력했다. 또 현지 Volunteer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 진행에 같이 참여 했다. 나의 손을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비록 아이들과 함께 있더라도 나는 그곳으로 향했다. 그 결과 이번 캠프가 끝날 무렵 나는 내 자신이 Volunteer로서 역할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였다.

근데 정말 내가 캠프를 잘 보낸 것이었을까? 그 순간 문득 든 생각이 Volunteer로서 내 역할 중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있어서 소홀했던 게 아니었나 싶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우리에게 Volunteer라는 역할을 줬을 때 우리에게 정말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혹은 캠프의 일정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바랬을까? 아니면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보다 즐겁고 좋은 캠프가 되게 하는 역할을 바랬을까? 나는 처음부터 이점을 놓쳤던 것 같다. 처음 캠프를 고민 없이 하다 보니 두 번째 캠프에서는 단지 첫 번째 캠프에서 하지 못했던 것만 보완하려 했던 것이다. 애초에 캠프에 입하기 전에 나에게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 건지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다. 왜 이런 생각이 캠프가 다 끝나고 나서야 드는 건지 너무도 아쉬울 뿐이지만 그래도 이런 고민을 통해서 잊혀진 부분을 다시 상기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만족을 해야 할 것 같다.



JYOTI(천보람)



5월에는 day camp와 lakeside camp가 있었다. YMCA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였는데, 캠프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참 우습게도 캠프를 떠나기 전에는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했으면 했던 4박 5일의 캠프인데, 내가 처음 보는 아이들이어서, 그 아이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다.

캠프 일정의 첫날 입에도, 아이들이 나를 '신기해'하거나 '어색해'하지 않고, 나를 보면 웃어주고 나를 한 명의 팀원으로 여겨주는 것 같고, 내 이름을 'Jyoti!' 라고 우렁차게 불러주고 나를 찾아주어서 너무 고맙다. 내가 좋아하지만, 또 나를 좋아해주시니 더욱 좋았다. 아이들이 하는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놀고, 아이들과 같은 입장에서 캠프를 겪었는데, 그 이후에 아이들이 나에게 더 마음을 열었던 걸 이제는 느끼게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 중에서 누가 나를 반겨주고 좋아해 주었을까 생각한다. 캠프 일정 동안 내가 있는 곳에,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어디선가 '쵸피!'하고 부르는 그 귀여운 목소리들이 너무 좋았다.

나를 찾아주고, 나를 향해서 웃어주고 나를 그리워했다고 말해주고, 아이들과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내가 많이 좋아하고 이뻐해 줄 수 있어서, 항상 '쵸피'를 불러주는 아이들과 함께여서, 나는 진심으로 캠프 일정 동안, 매 순간 아이들로 인해서 슬며시 미소 지을 수도, 너무 행복해서 크게 웃을 수도 있었다. 참 너무나 행복했다. 이런 짝찬 기분을, 따뜻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아이들에게.



캠프 마지막 날, 캠퍼 아이 쿠니카와 함께 짐을 싸고 있었는데, 짐을 싸던 쿠니카가 어느 선가 울고 있었다. 쿠니카 침대에서 그 아이가 너무 서럽게 울고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도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다. 처음에는 쿠니카를 달래주다가 결국 그 아이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슬퍼져서 나도 마구 눈물이 났다. 그렇게 우는 것을 시작으로 계속 울음이 멈추지 않고, 만나는 아이들 마다 아이들을 한 명씩 볼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서 계속 울었다. 크리스가 울고 있는 나를 보고 왜 우냐고, 그게 한국말로 왜 우냐고 하면 북받치는 감정이 덜 할 텐데 영어로 아이들이, why are you crying? 하는 게 너무 더 울컥해서 더 눈물이 났던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don't cry, don't cry. 했었는데 그 말도 더 나를 울컥하게 했다. 아이들이 나를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에 더 눈물이 나고, 나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내 눈을 봐주고 자기들이 더 울 것 같은 목소리로 'jyoti...' 라고 하는 목소리 때문에 더 울게 되었던 것 같다.

진짜 그렇게 어린 꼬마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챙겨주고 보듬어주는 게 나를 더 울게 한 것 같다. 진짜 말도 안되게 정말 5일만에 만났다가 헤어지는데 왜 눈물이 나는 건지, 그런 걸 정말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그리고 절대 나도 울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우는 것이 정말 이해되지 않고 우스울 거라 생각했는데,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자꾸 눈물이 났다. 아이들이랑 한번 만나고 영영 헤어지는 게, 앞으로 절대로 만날 수도, 땡을 수도 없다는 게 슬프다. 애들이 너무 그리울 것 같다. 가 아니라 지금 당장 너무 그립다. 나중은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캠프를 통해서, 내게 많은 애정과 기쁨을 안겨주었던 아이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는 나 자신을 조금 더 좋아하게 된 것 같다. 엄밀히 말하자면 인도 뭍바이에 살고 있는 Jyoti를 너무나도 좋아하게 된 것 같다. 이제는 보람이보다 Jyoti가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 그 동안 이름에 그렇게 많이 정을 붙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캠프를 다녀와서 아이들이랑 만나고,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불러주는 내 이름을, 이제는 많은 아이들이 알고 있는 이름인, Jyoti를, 또 나 자체인 Jyoti를 많이 좋아하게 되었다는 걸 느낀다. 그 점에 있어서, 너무너무, 천보람이자, Jyoti인 나 스스로 행복함을 느낀다. 참 신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참 좋다.

나는 지금 계속 인도에 와서, 매일 매일 바뀌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게 깊어지는 것 같고 또 한국에 있을 때, 방에서 뒹굴 거릴 때 느끼지 못했던 또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아간다고 해서, 그리고 내 머릿속에 무언가 조금씩 축적되어 가고 뭔가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간다고 해서, '내 자신'이 변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변화'라는 말은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다. 나는 여전하다. 그냥 단지 알아가는 게 많을 뿐이다. 또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나 기회들이 많은 것일 뿐이다. 그런 기회가 과연 내 삶에 긍정적이고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 주는 매개체가 되어줄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다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내가 만나고 있는, 만났었던, 내게 많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던, 아이들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들'에 감사하다.



Name : Jyoti (20 years old)
Group : Super Stars
Favorite color : purple
Favorite food : spicy snacks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한국에 있을 때도 물론 많은 아이들을 만나왔지만, 인도에서 말로 의사소통 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국에서보다 더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다. 비언어적인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심으로 느끼고 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웃음과 미소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또 표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좋아하는지 또 슬퍼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고, 목소리를 통해서, 또 지그시 바라보는 눈빛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음을 배운다. 그래서 이곳의 아이들과는 진짜 작은 표정의 변화 같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해 서로의 감정을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서로를 알아채는 게 너무 신기하다. 아이들을 만나는 경험으로 인해 한국에 돌아갔을 때, 아이들을 더 이해하고, 아이들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다.



Akkha Mumbai, Khelega !

Thank you :)